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가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November 25, 2021 Vol. 791

“한반도평화법안(H.R.3446) 평화아닌 전쟁 불러올 것”

KCPAC 그랜트 뉴스햄 대표,
한미 동맹 강화 및 주한미군 주둔 역할

“한반도평화법안은 평화가 아닌 한반도 전쟁법안 또는 김정은을 위한 선물 법안 등으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이 통과되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가져올 것이고, 주한 미군의 철수는 곧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부추겨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러올 것 입니다.”

지난 20일, 엘에이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법안(H.R.3446)’ 특별 강연회에서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그랜트 뉴스햄(Grant Newsham) 대표는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설명하며 법안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KCPAC 주최하고 한미기독연합회(KACC·회장 민승기 목사)가 주관한 이날 강연회에서 뉴스햄 대표는 한반도 평화법안이 통과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

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미 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과 로 칸나, 앤디 김, 그 레이스 멩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포함한 종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미국 부가 워싱턴 D.C와 평양에 연락 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이 발효된 이후 180일 이내에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합의 달성을 위한 로드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졸속처리의 우려도 안고 있다.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그랜트 뉴스햄 대표 ©기독일보

뉴스햄 대표는 “한반도평화법안이 통과되고 평화협정에 서명이 이뤄지는 순간 북한과 한국 내 주사파 세력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한미동맹을 무력화 시키려 들 것”이라며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한미군이 철수

하면 북한과 중국은 좀 더 대담하게 대한민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북한 정권의 움직임을 보면 평화나 인권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과 핵무장으로 세습 권력 유지와 적화통일에만 몰입해왔다”며 “최소 수 십 만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50년 이상 후퇴시키는 한반도 전쟁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햄 대표는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방어를 기초로 이뤄진 자유민주주의의 결과”라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지역에 살고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북한에 역류했다가 2014년 11월 풀려난 케네스 배 선교사도 이날 강연회에 참석해 북한 세습 정권 실상을 소개했다.

김동욱 기자



©Diana Polekhina / Unsplash

대부분의 미국 개신교 교회가 대면 예배로 돌아갔지만, 출석률은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프웨이는 올해 9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

미국 교회 98% 현장 예배 재개, 출석률은 2년 전 50% 수준

국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예배 개방과 출석률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목회자의 98%는 현재 대면 예배를 위해 교회를 개방했다고 답했으며, 이는 코로나 전염병 발생 이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해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반면, 올해 8월과 2020년 1월 예배 출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교회 10곳 중 3곳(35%)은 코로

나 이전 출석률의 “50%에서 70% 사이”를 유지했고, 3곳(30%)은 “70%에서 90% 사이”라고 답했다. 절반 미만의 출석률을 보인 교회는 13%로 집계됐다.

아울러 교회 8곳 중 1곳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90%에서 100%대”의 출석률을 보였다

고 답했고, 9%는 “대유행 이전보다 인원이 더 늘었다”라고 말했다.

출석률이 전염병 이전의 30% 미만으로 급감했다는 응답

은 미국 흑인 목사들이 백인 목사보다 무려 12.5배 더 높았다.

스콧 매코널 라이프웨이 리서치 이사는 성명을 통해 “많은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전체 교인이 물리적으로 함께 모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예배 참석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오늘날의 대면 참석률과 코로나 이전 수준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유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 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중고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적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엔키아 선교회, 추수감사절 맞아 탈북민들과 사랑 나눠

미국 남가주 탈북민 선교단체인 엔키아 선교회(NKIA MISSION 대표 김영구 목사)는 지난 21일 남가주 하늘문교회(담임 한기형 목사)에서 탈북민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감사예배 및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갖고 따뜻한 고향의 정을 나눴다.

엔키아 선교회는 탈북 가정에 각각 300달러를, USC에서 공부하는 2명의 탈북 학생에게 각각 6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나눔을 위해 하늘문교회, 남가주유교동지회, KACC, 이승만대통령 기념사업회, 이북오도민 협의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예수로 교회, 충청향우회, 남가주 학사장교회, 대한민국 역사지킴이 운동본부, OC 민주평통등 10여개 단체가 후원했으며, 본국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도 '탈북민 10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3천 달러를 보내왔다.

김영구 목사는 남가주 탈북민

들에게 "자유 찾아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북한에 전해야 한다"며 "탈북민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도록 단합하자"고 당부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 한기형 목사가 "에베에셀의 감사"(삼상 7: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최학량 목사나 OC 민주평통 회장인 김동수 장로가 격려사를 전했다.

한기형 목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에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며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이 이뤄질 것인데 이스라엘에 다윗의 왕조를 세웠던 아달람 굴의 용사들처럼 엔키아 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통일 조국의 큰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학량 목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는 뭉쳐야 산다. 탈북민들이 갈등을 넘



엔키아 선교회 추수감사절 감사예배 ©기독교일보

어 단합을 이룰 때 반드시 승리하고 북한 공산주의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며 "낙심과 절망 대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자"고 격려했다. 김동수 장로는 "청교도들이 새로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개척했듯이 자유를 찾아 새로운 땅에서 자유의 삶

을 개척하자"고 전했다. 한편 엔키아 선교회는 매달 중국 영사관 앞에서 강제북송금지 시위를 진행 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교회의 미래 사역 비전은 무엇일까?”

[신간] 미성대 이상훈 교수의 “온라인 사역혁명”



이상훈 교수(AEU 미성대 총장)의 신간 <온라인 사역혁명>이 교회성장연구소를 통해 출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이미 거대한 변혁의 파고에 휩쓸렸다.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문화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정착될 때, 교회는 이 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저자는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세상은 이미 거대한 변혁에 파고에 휩쓸렸다. 앞으로는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문화

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착될 텐데, 이에 맞춰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제시했다.

그는 “여기서 생산적인 관점은 발전하는 기술을 선교의 도구로 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찾는 태도다”라며 “그런 관점에서 미래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희망이 있다.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 연결되고 훈련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역이 오프라인과 연결되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교회는 훨씬 더 긍정적인 미래형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창조적인 미래형 사역이 이뤄지고 있다. 본 도서에는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고 있는 미국 교회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온라인 사역의 혁신적 모델을 통해 원리와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로 실천하고 있는 미국 교회들의 사례를 통해 시대에 맞는 선교적 대응이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저자 소개

저자 이상훈 교수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호주에서 성경 교육과 선교 훈련을, 미국 풀러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 과정을 마쳤다. 현재 미국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미성대) 총장, 풀러선교대학원 한국 학부 겸임 교수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대표 디렉터, 글로벌 위십 미니스트리 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리폼처치>, <처치 시프트>, <리싱크처치>, <리뉴처치>가 있으며 공저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 교회> 등이 있다.

최승연 기자 이상훈 총장



그레이스미션대학, 간병인 사역 선교 세미나 개최

11월 30일(화) 오후 2:30 온라인 줌 컨퍼런스

그레이스미션대학교(최규남 총장, 이하 GMU)는 간병인 사역을 통한 전도 및 선교 세미나를 오는 11월 30일(화) 오후 2시 30분, 온라인 Zoom 컨퍼런스로 개최한다.

간병인 사역을 통한 전도 및 선교 세미나는 △간병인 자격 △간병인 사역의 필요성 △간병인 사역을 통한 전도 사례 △간병인 사역을 위한 절차 등의 주요 내용을 다루며, 신학생들이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을 소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현재 간병인 사역을 하고 있는 GMU 학생을 통해 간병인 사역 현장의 실제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세미나를 신청 하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관심이 있으신 사람들은 누

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한편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는 현재 미연방교육국 USDE가 인정학위인가기관인 ABHE, TRACS, ATS의 정회원학교로서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과 연방정부학비보조인 펠 그랜트(PELL GRANT)와 캘리포니아 주정부학비보조 칼 그랜트(CAL GRANT)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00% 통신편육과 영어트랙 등이 제공되며 다양한 장학금혜택이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학사 학위과정은 신학과 기독교상담학 과정이 있으며, 석사학위과정으로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목회학과정이 있다. 박사과정으로 선교학과 교차문화학 철학박사과정이 있다.

김동욱 기자

◆간병인 사역을 통한 전도 및 선교 세미나

Zoom Conference (join id 285 436 8908 pw: 1170) 문의: 714-525-0088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2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참가 인사 올립니다.



취임회장
김용준 목사

부족하지만 51년 동안 남가주 내 1400교회를 대표하며 교계와 이민 사회를 섬겨온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의 제51대 회장 이임식과 제52대 회장 취임식을 갖고자 합니다. 그 동안 격려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한인사회 성도님 들 그리고 교계 선후배 동역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우고 바쁘시더라도 부디 오셔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임회장
조병국 목사

- 일시 : 2021년 11월 28일(주일) 오후 5:00
- 장소 : 한미장로교회 (김영모 목사 시무)
929 S. Westlake Ave, LA, CA 90006
- 문의 : (213) 271-5034 (총무: 최영봉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소망소사이어티, '시니어 생활 건강 가이드' 출판 기념회 개최

소망 소사이어티(이하 소망-이사장 유분자)는 지난 11월 13일(토) 오전 10:30 부터 오후 12:20까지 LA에 위치한 남가주 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 시무)에서 '시니어 생활 건강 가이드' 북 출판 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회는 김미희 라디오 서울 뉴스 앵커가 사회를 맡고, 박성근 목사(남가주 새누리교회 담임목사)의 개회 기도와 감사 메세지로 시작했다.

소망중창단과 아르모니아 싱어스의 아름다운 노래와 서면으로 대신한 박경재 총영사의 축사, 뉴욕 봉사센터의 김명미 부회장과 박영규 유튜버의 스피치가 연결 되었다.

주제 강의로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고문이자 UC MIND의 디렉터인 신혜원 박사의 '치매 연구 어디까지 왔나?' 하이라이트를 이루었다.

박용필(편집 고문), 김양욱, 허



소망소사이어티 '시니어 생활 건강 가이드'출판 기념회 개최

지희, Ira Hermann, JC Sales, Helen Pak과 UEC의 7명에게 북 증정, 케익커팅으로 기념회는 종결되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700명 좌

석에 300명을 선착순으로 예약(RSVP)을 받았는데, 좌석 예약은 매진 되었으며, 오신 모든 분

들께 책과 도시락이 무료로 배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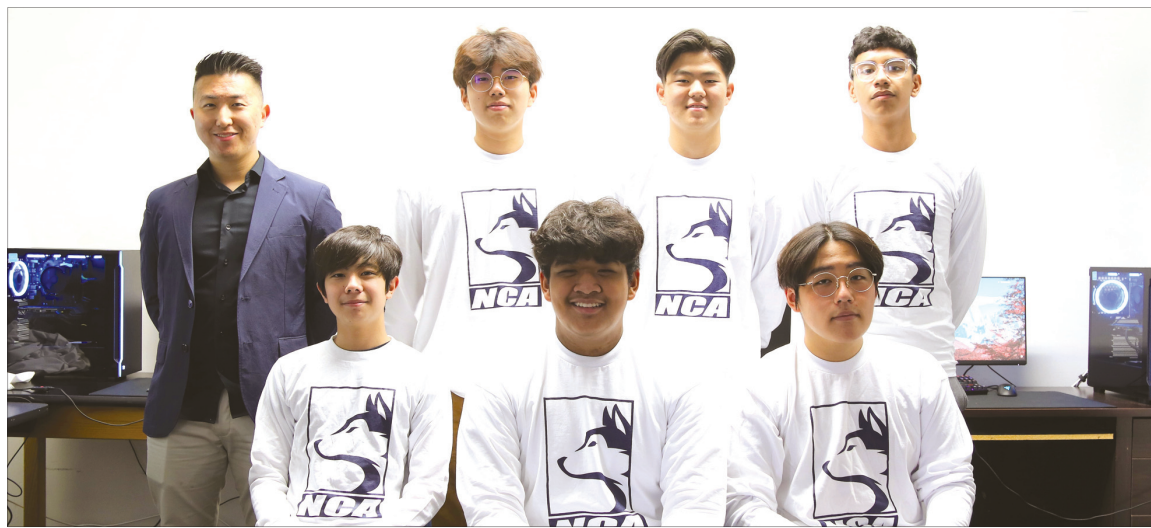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의 메디케어 가입부터 치매와 호스피스, 장례까지 두루 망라한 알찬 책을 받으신 분들은 희색이 만연하여 집으로 돌아갔다는 후문이다.

소망에서는 출판 기념회 이후 평생회원, 일반회원, 모든 후원회원들에게 우선 무료 배부하고 있으며, 타주나 거리가 먼 분들에게 우편으로도 배부하고 있다.

싸이프레스에 있는 본사(562-977-4580)와 LA 지부 사무실(213-908-5034)에서 수량이 떨어질 때까지 배부하고 있으며, 전화 예약 후 방문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시니어 생활 건강 가이드'북을 2022-23년 호로 발간한 것이며 2024년에 다시 업데이트된 개정판을 낼 예정이다. 신청이나 문의는 소망사무실(562-977-4580)이나 somang@so-mangsociety.org로 하면 된다.

NCA eSports 팀 최종 순위 4위 등극



2021년 가을학기부터 시작한 새연약 초중고등학교(교장 제이슨 송, 이하 NCA)의 첫eSports 팀은 12승 2패의 우수한 성과로 정규 시즌을 마쳤다.

팀의 최종 순위는캘리포니아주 CIF (California Interscholastic Federation)관할 하의 115개 팀 중 4위. 약 2주 후 정규시즌에 상위 32개 학교가 플레이오프에 진출 해 최종 승자를 가른다.NCA의 대표 선수들은 방과후 모여 꾸준히 연습해 시즌 내내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속적으로 톱 10위 랭킹을 유지해 왔다.

선수 중 다수는 eSports 팀의

에 축구팀과농구팀에서도 활약하고 있기에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그들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또한 NCA학교는 선수로서 뛰려면 grade C가 없어야하고 GPA 3.0이상유지해야하기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있다.

제이슨 송 교장은 "학교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매 경기에 임하고 또한, 공부도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생들을 보며 자랑스럽다"고했다. 현재 NCA보다 상위에 있는 3개 팀 중 2개는 과거 주 챔피언이다. 플레이오프에서마지막 최강 두 팀은 TV를 통해 생방송 경기를 펼친

다고 한다.

NCA는 WASC 공식인증을 받은 K-12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한인타운내에선 유일한 IB 디플로마/ PYP/ MYP/ DP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명문 학교다. 1999년에 설립되어 졸업생 전원이 적어도 UC 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그 중 다수는 전국 톱 30대 대학에 진학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NCA에 대한 질문 및 의뢰는 sally.min@e-nca.org 에게로.학교 웹사이트 주소는 www.e-nca.org 그리고 SNS 는 Facebook (@ncahuskies),Instagram (@nca_huskies) 이다.

한인가정상담소, 한인들 위한 무료상담 서비스 확대

한인가정상담소(KFAM·소장 캐서린 염)가 'R.O.C.K 카운셀링 기금'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염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연방이나 주정부 보조, 개인 후원, 특별 기금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한인들에게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자녀문제나 부부문제, 가정불화, 우울증 등 다양한 이유로 상담을 원하지만 비용 때문에 주저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R.O.C.K 카운슬링 기금은 2015년 익명의 한인 후원자

가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체류신분이나 경제적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가정을 위해 5만달러를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 후원자는 2016년에도 5만달러를 후원, 한인가정상담소가 무료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올 연말 세번째 기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캐서린 염 소장은 "R.O.C.K 카운슬링 기금 덕분에 기존에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었고,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결과 한인사회에 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한편, R.O.C.K프로젝트의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은 서류미비자나 저소득층, 가정폭력 피해자, 무보험자 등이다.

문의: mlee@kfamla.org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영목사(세수신도원), 조성영목사(장신대 영예교수), 이종희목사(세수신도원), 송경원목사(복음선교회 공동대표), 권준희목사(중앙침례교회), 신명진목사(중앙침례교회), 유관기목사(새생명침례교회), 김관식목사(KCC공동대표)

• 빛은 목은 나의 연애사로 주음방송 수 있습니다.
\$20/원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휘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과,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원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기도문 동역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OC 기독교교회협의회 정기총회

OC 기독교교회 협의회 31대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장 박상목 목사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은혜한인교회(Wedding Chapel)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총무 추석근 목사 (714)213-9627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31

“선교적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필자가 섬기는 멕시코 장로회 신학대학에서는 학년 별로 15명씩 4년 과정으로 60명의 학생들 전원 합숙을 하면서 공부와 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 신학교의 교훈이 “경건과 학문”이라고 들었다. 우리 학교도 이 두 방향 모두의 완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어느 날 학생 한 명이 내 사무실 문을 노크했다. 3학년 루이스라는 학생이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4학년 졸업 대비 논문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다. 어떤 방향으로 논문을 써야 할지,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등을 물었다. 물론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하고 있는 논문교수가 있다. 논문 교수에게 여쭙라 말하였지만 나는 그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먼저, 학교를 졸업한 후의 진로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하였는지였다. 그는 졸업 후 자신을 신학교로 보낸 교회로 돌아가 담임 목사님을 도우면서 목사 고시를 준비할 것이라고 하였다. 분명한 소신이 있어 좋았다. 그리고 학장님이 가르쳐 준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자신의 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다고 하였다. 나는 졸업 논문은 자신이 사역할 교회 현장에서 자기 가 펼칠 수 있는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것이면 더없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였다. “루이스, 너는 후에 선교적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그는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기도를 요청했다. 같이 기도하고 대화를 마쳤다.

는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초대 교회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교인들을 배출하고 있는가로 본다. 안디옥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파송할 선교 리더십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같이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 믿는다.

그가 돌아간 후 필자는 홀로 앉아 오랜 시간 생각을 했다. “내가 지난 25년간 했던 목회는 과연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였는가?” 자문해 보았다. 목회의 반 이상은 선교적 교회의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지냈다. 용어를 어렵듯이 알면서 지낸 나머지 반의 기간도 선교적 교회를 향한 몸부림으로 마친 것 같았다. 아쉽고, 안타까웠다. 필자는 존 파이퍼 목사가 말 한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 표현을 공감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선교적 교회

과거 필자는 교회의 재정에서 20%를 선교비 예산으로 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선교들을 정하여 후원비를 보내고, 단기 선교를 매년 가는 것으로 교회의 선교 사명을 관철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허세를 가진 적도 있었다. 많이 부끄럽다.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선교 대사명을 위한 지극히 성경적 표현인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 존재론적 임무를 망각하면서 교회 앞에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 이 글을 쓰면서도 필자는 다시 우리들의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선교 지상 대명령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으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교회”를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겠다는 사명감 앞에 가슴이 뛰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5천여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는 교회, 무너져 가는 예배를 바로 세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그 땅에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강력한 사탄의 세력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온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을 오늘도 만들어 가고 있는가?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는 신약성경 “신구약 중간기 왕조들”

하스몬 왕조는 다른 왕조와 마찬가지로 내부 권력다툼을 시작으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맛디아의 세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 다섯째 아들 요나단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몬이 이끌며 셀레우코스 왕국의 실력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독립운동 세력이 되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시몬이 하스몬 왕조를 선포하고 유대인의 독립왕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사위 프톨레마이오스가 시몬과 두 아들을 살해하고 반란을 꾀합니다. 하지만 시몬의 셋째 아들 힐카누스가 살아남아 가문의 명맥을 유지합니다. 힐카누스는 군대를 이끌며 나라 안정을 꾀합니다. 하지만 권력 다툼을 평정한 안티오쿠스 7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큰 위기를 만납니다.

힐카누스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합니다. 우선 화친을 제안하고 다윗왕의 묘를 열어 삼천 달란트를 안티오쿠스 7세에게 바쳤고, 유대인 군대를 셀레우코스에게 보내 안티오쿠스 7세 편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 대가로 유대의 종교적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습니다. 힐카누스는 안티오쿠스 7세가 실권하자 독립선언을 하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힐카누스가 이두매 지역을 정복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하게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도 개종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유대 정치상황을 틈타 권력을 잡습니다. 동생 아리스토틀루스에게 대제사장직을 빼앗긴 힐카누스편에서 싸우며 영향력을 키우던 안티파테르는 로마 폼페이 장군을 끌어들이 유대 세력을 평정합니다. 그리고 힐카누스를 대제사장에 세우고 자신은 권력을 잡습니다.

BC. 47년 율리우스 시저(Julius

Caesar)는 안티파테르에게 로마 시민권과 유대지역 총독 자리를 줍니다. 헤롯 가문의 로마정권과 밀월이 시작됩니다. 그가 유대를 차지한 야심 많은 아들 헤롯을 갈릴리 지역 통치관으로 임명합니다. 영리한 헤롯은 권력의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하스몬 왕가에 대한 열등감을 정리하고 로마 실력자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헤롯은 천재성이 번뜩이는 정치 감각과 근성으로 로마 권력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 출신 헤롯이 유대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유대인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포로기 이후에는 혈통의 순수성에 더욱 집착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헤롯의 혈통은 큰 약점이었습니다. 헤롯은 하스몬 왕가 후손과 결혼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합니다.

헤롯은 혈통 등의 문제로 유대 백성들과 유대 땅의 세력가들에 인정받는 것은 실패했지만 로마 황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헤롯은 격변하는 로마 정세의 능선을 타고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해 나갔습니다. 헤롯은 주군이 망해도 자신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왕은 처음엔 카시우스편에 섰고, 카시우스가 안토니에 패하자 안토니로 갈아 탑니다. 안토니가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안토니와 옥타비아누스가 싸울 때, 헤롯은 안토니를 돕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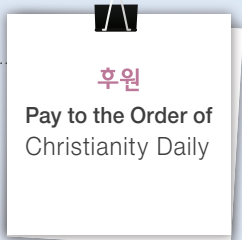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도 헤롯은 포기하지 않고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 설득합니다. 헤롯은 왕의 옷을 벗고 일반 평민 복을 입고 카이사(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우구스도)앞에 나아가 자신의 입장을 어필합니다. 로마의 실력자 카이사(옥타비아누스)는 헤롯의 말을 듣고 통 큰 로마 황제답게 헤롯을 수용합니다. “좋다! 그대를 살려 주겠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확고한 왕의 자리를 보장 해주겠다. 대신 그대는 안토니를 섬겼듯이 나에게 충성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변함없는 충성으로 나를 따르도록 하라!” 물론 이것도 거칠게 간추린 내용입니다. 헤롯은 권력에 대한 천부적 감각과 집념으로 권력을 쟁취하여 유대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1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20여명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많은 부인에게서 얻은 자녀들은 서로 얽히는 결혼관계를 통하여 가정의 불화와 상처를 낳았습니다. 헤롯의 자녀들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이 권력에 대한 의지가 형제들의 암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세 아들, 아켈라오, 빌립, 안디바가 유대를 분할하여 분봉왕이 됩니다. 빌립은 비교적 안정적인 통치를 하지만 아켈라오와 안디바는 아버지 헤롯과 유사한 야심과 약정으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지역은 제국들의 싸움터였던 조선말기의 한반도와 같았습니다. 어렵게 독립을 쟁취한 하스몬 왕가의 몰락과 헤롯 가문의 등장은 유대인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웠고 유일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이런 것이 초대 교회의 세계 선교를 위한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Voting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세계 속의 한국인

민주주의 꽃 피우다

Koreans around the World, Democracy Blossoms!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overseas absentees and voters are required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in advance.

Table with 2 columns: Overseas Absentee Report Period (2021.10.10. ~ 2022.01.08.), Registration for Overseas Voters (~2022.01.08. 까지 by January 08, 2022)

- 신고·등록신청 방법: 인터넷 이용(ova.nec.go.kr), 공관방문 / 순회접수,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신고·등록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Report or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ova.nec.go.kr

투표기간: 2022.02.23. ~ 02.28.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3)

복음의 닻을 내리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토마스 선교사

1866년 제너럴 셔만호의 평양 대동강의 무단 출현과 그 배에 성경을 싣고 온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사건은 한국의 근대사라는 일반 역사와 한국 교회사 의 양면성을 함유하고 있다. 그 파급 영향이 1882년 미국과 수교로 이어지면서 조선의 근대사를 여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1884년과 1885년 미국의 선교사들이 최초로 파송받아 입경함으로써 한국교회 역사의 정사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토마스의 순교는 결과적으로 40여년 후에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에 한 알의 밀알로 심겨진 것이었다. 그의 대동강에서의 순교가 놀랍게도 그 이후에 다른 선교사들에게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인과성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먼저 토마스 선교사는 왜 조선에 셔만호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왔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한다. 그는 원래 중국 상해로 파송받은 선교사였으나 아내가 출산 중에 사망하자 실의에 빠져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개항지인 산둥성 엔타이(지프)로 와서 통역사로 일하던 중에 그곳에서 조선 백령도에서 건너 온 김자평을 만났다. 놀랍게도 그는 천주교인이었으며 그로부터 조선의 천주교인들의 박해와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선의 복음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토마스는 1865년에 그와 함께 백령도로 건너와서 수 개월을 지내면서 그 섬과 웅진반도의 해안 마을까지 접근하여 한문 성경을 배포하였고 약간의 조선어를 익혔다.

토마스는 다시 엔타이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즈음에 미국 국적 상선인 제너럴 셔만호가 통상차 중국에 왔다가 이어서 조선에도 통상을 할 계획을 세우고 평양으로 향하려 했고 통역사가 필요하였다. 마침 토마스 선교사가 이에 자원함으로써 그 배에 승선하게 되었다. 그는 약 5백여권의 한문 성경을 싣고 1866년 8월에 출항하였다. 이는 분명 조선 본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도였고 선교적 목적을 품었던 것이다. 이 배에는 망원경과 자명종이라는 시계와 유리 그릇과

비단이 실려져 있었다. 엔타이항에서 출항한 이 상선은 백령도를 거쳐서 대동강 입구인 진남포로 들어서 평양 중심인 능라도 앞에 이르렀다. 토마스 선교사는 강을 따라 올라오면서 도중에 여러 강변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조선에서는 매우 엄혹한 정국이었다. 다른 천주교들을 향한 박해가 1866년 2월로부터 시작된 '병인박해'로 전국에 약 8천 명이상이 참수를 당한 상황이었다. 그 배는 평양 만경대 앞에 다달아 통상을 요구했으나, 이 당시 평양 감사인 박규수는 쇄국정책을 거스를 수 없었기에 통상을 거부하였고 돌아갈 것을 회유하며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장작까지도 제공하였다. 토마스는 그 배가 몇 주간 강변에 정박 중에 평양 주민들에게 야소(예수)를 믿으라며 성경을 힘써 배포하였다.

이 배는 조선 측과의 협상이 불발되자 급기야 조선군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에 박규수의 지휘하에 화공범으로 맞서서 셔만호를 침몰시켰다. 그 와중에 그 배의 19명의 승선원들은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품고 뛰어들려 강변으로 올라왔으나, 군졸들에게 잡혀 박춘권이라는 군관에 끌려 나왔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그에게 '야소'를 믿으라며 성경을 전했다. 이를 물리친 박춘권은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형에 처했다. 그는 그 전투를 마무리하며 돌아갈 때에 그 책을 집어 들었으나 성경책인 줄 모르고 가져간 것이었다.

평양 감사 박규수는 셔만호를 물리친 승전 기념으로 그 배의 닻(anchor)과 달려있는 쇠사슬을 대동문 성벽에 걸어 놓았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관가에 바치도록 엄명을 내렸다. 주민들이 갖다 바친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주사는 자기 집에 도배지로 발라버렸다. 그 당시 대동강 변에서 전투가 벌어진 광경을 보았던 15살의 최치량은 성년이 되어서 그 관리의 집을 구입하여 평양에 여관으로 사용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Wikipedia

하였다.

한편 조정에서는 박규수의 공로를 치하하여 높은 관직을 주어 한성 왕실에서 봉직하게 하였다. 그는 실학의 북학파인 연암 박지원의 3대손이었으며 개화파를 이끄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 후 그의 개혁 주장을 대원군이 받아들이지 않자 관직에서 물러나 개화파 청년들을 양성하였다. 그 대표적 제자들이 김옥균과 박영효, 서재필 등이었다. 이들이 후에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된다.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시킨 박춘권은 그 당시 40세가 지난 퇴역 군인이었으며 셔만호 사건 때에 징발되었었다. 그는 셔만호 격침에 공로를 인정받아 평양 근처 안주골의 작은 벼슬을 하사받아 관직 생활을 하였다. 박춘권은 여생을 보내면서 토마스가 건네 주었던 한문 성경을 보

순교의 피는 평양인들에게는 구원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평양 대동문에 걸려있는 그 앵커는 훗날에 평양 주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앵커(Anchor)가 된 것이었다. 토마스 선교사의 평양에서 순교는 교회사적 의미로 볼 때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조선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놀랍게도 그의 순교는 그후에도 연속성 있는 북한 교회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

1866년 9월 2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지 8년이 지난 1874년, '스코트랜드 연합장로교회' 출신인 존 로스(John Ross, 1842~1915)가 중국 산둥성 엔타이(지프)에 같은 스코트랜드 출신인 알렉산더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 1829~1890)을 방문한다.

이때에 존 로스 선교사는 선배 선교사인 윌리엄슨으로부터 잉글랜드 웨일즈 출신인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선교를 하러 평양으로 들어갔다가 순교를 당하였다는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아 토마스 선교사가 이루지 못한 조선 선교의 바통을 자진하여 이어받게 된다.

윌리엄슨 선교사는 조선 선교의 멘토이기도 하였다. 그는 토마스에게 백령도 출신의 천주교인 김자평을 소개해 주었고, 토마스가 셔만호를 타고 조선으로 갈 때도 많은 성경과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윌리엄슨은 다시 존 로스로 하여금 조선 선교를 결심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계속)

면서 자생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놀랍게도 사무엘 마펏 선교사가 평양 대동문 근처 널다리골에 1893년에 교회를 개척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60대 후반이 된 박춘권은 자기 발로 그 교회에 찾아와서 사무엘 마펏 목사에게 자신이 지난 날 어느 서양인을 죽인 당사자라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인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든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고 했다.

어느 교회 역사가는 토마스의 순교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였다. "토마스가 대동강에 흘린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기독교일보 제공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교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교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의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윤석열 후보, 21일 사랑의교회서 주일예배 드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제3부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전희경 전 의원(국민의힘 서초갑 당협위원장)도 윤 후보와 함께 자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약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뒤 오정현 목사와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을 같이 했다고 한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0월 10일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주일예배에도 참석했다.

또 지난 9월 3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미션스쿨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대광초등학교를 나왔다.

당시 윤 후보는 한국 기독교가 일제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을 비롯해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했다



윤석열 후보가 21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제3부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또 “해외 선교활동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받았던 기독교의 문화와 혜택을 다른 나라에 다시 돌려주며 선교를 통한 국위선양을 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독교의 발자취

를 보면 특정 정파를 떠나서 국민이 하나가 되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해 나가고 국가가 발전하는데 정신적 문화적으로 큰 기여를 해오셨다”며 “저희도 늘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고 또 낮은 데로 임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매진해 오신 한국의 기독교 정

신을 정치하는 데 있어 잘 새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 통합 없이는 어떤 국가적 난제에서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 나라가 진영 논리에 의해서 너무 찢어져 있고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또는 동북아 안

보문제라든지 고질적인 저성장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국민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이 너무 안 되어 있고 너무 찢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그런 토양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의 정신을 잘 새겨서 국민 통합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보겠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지난 9월 15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마련됐던故 조용기 목사의 조문소를 찾아, 당시 현장에 있던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등과 인사를 나눴다.

김진영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코로나 이전 대비 80% 출석 회복

성도들 열정 뜨겁고, 교역자들이 꾸준히 격려한 결과



성도들이 특새에 참석한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는 ‘2021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를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대면예배가 불가능했던 시간을 벗어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예배 회복에 대한 열정이 새벽기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첫 주일인 지난 11월 7일 주일예배의 경우 코로나 이전의 예배 참석자 수의 80%가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회 측은 밝혔다.

교회 측은 “성도들의 예배 회복 열정이 뜨겁고, 교역자들이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전화 심방 등을 통해 꾸준히 성도들을 격려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에는 청년들의 참여가 많다고 한다. 이는 최근 경제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기도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전했다.

특새에서 이영훈 목사는 ‘복 있는 사람’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여덟 가지 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복은 “팔복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전하신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삶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팔복 중 첫째인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한 것’으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설교했다.

이대웅 기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철거 시도 과정서 폭행·도난당해”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생했던 강제집행 시도에 대해 해당 지역 재개발조합장과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교회 측은 당시 전광훈 목사에게 폭행과, 현금 도난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어린 나이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목회에 인생을 바쳐 오다가, 교계 원로들의 간곡한 부탁과 요청에 따라 애국운동도 펼쳐 왔다”며 “그러던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하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싸움이 시작됐다”고 했다.

전 목사는 당시 하야 촉구의 이유로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 파괴, 소득주도성장과 대기업 해체, 안보 해체, 원전 폐기, 4대강 해체, 국제외교 왕따, 대한민국 해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자 저를 죽이려고



전광훈 목사.

감옥에 보내는 가 하면, 그래도 안 되니 이번엔 교회 자체를 없애려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착각이다. 교회가 없어진다고 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전날 사건에 대해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조합측에서 연락이 와서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라 하기에 내가 지방에 있으니 서울에 가면 대화하자 답했었는데, 갑자기 월요일 새벽 3시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뺏어 나눠먹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대해선 안 된다”며 “저는 제 교회를 넘어 모든 교회의 대표로서 절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문제로 조합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송경호 기자

牧會寶鑑

목회 현장에서 발견한

목회보감

이 책은 부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처럼 길자연 목사의 은혜목회 회고록으로 목회현장에서 발견한 목회보감이다.

내용은 세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파트는 “나의 인생, 나의 고백”으로 가계 소개와 목회자로 소명 받은 과정이며, 제2 파트는 “나의 목회 사역”으로 영성목회와 교회부흥, 리더십, 설교 등이며, 제3 파트는 “한국교회를 향한 원로의 제안”으로 연합운동과 신학교육 현장의 사역을 통한 권면들이다.

길자연 저 / 408면
22,000원 / 신국판 양장

목회(傳) 길자연 목사

현역 목회자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 설문조사에서 가장 리더십이 좋은 목회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평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를 전하며 영성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 깊은 영성은 명의(名醫) 칭호를 받으신 부친과 동대문 일대 거지들에게 국밥을 끓여 대접할 정도로 섬기는 삶을 사셨던 모친에게서 물려받았다. 절충노도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부친에 이어 한의대를 졸업해 개업 한의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침통을 놓고 성경을 붙잡고 탁월한 영성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고 있다. 양성교회 원로목사이고, 현재는 양평에서 백합전원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산의 낙조처럼 살아오고 있다.

서울양성교회, 과천왕성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숭한 직책을 걸어오면서 기독교복한선교회 이사장(1984),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1991), 총회신학대 재단이사(199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1998), 개신교연합부활주일 연합예배 대회장(1999), 영성 목회연구회 총재(199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선교대학 2대 학장(2000), 기독교복한선교회 총재(2002),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이사장(2002), 제10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03-2004), 칼빈대학교 총장(2007-2011), 제17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10-2011), 제5대 총신대학교 총장(2013.12) 등을 역임했다.

1941년 4월 19일생으로 1964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를 졸업하였다. 2001년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량스런 대광인상 수상(2003), 지량스런 목회자상 수상(2003), 서울기독교대학교 명예철학박사(2004), 미국 루이지애나 벨트스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2005)를 받았다. 저서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가지고 가는 사람, 두고 가는 사람》, 《문제 곁에 있는 해답》, 《고난 속에 숨은 축복》, 《길자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 1,2》,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연말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 삶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며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목, 수, 금)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저녁) 새벽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 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기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방인들을 책임지며, 이방인들을 사랑하며, 선교를 영감을 주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den 코너)
T. (213)386-223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와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 금) 오전 6:30(토)
3부예배 오후 7:3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4대 지역: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르그교회와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중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우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arasng.org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2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주일 1부 오전 9:00 J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돋이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2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예배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우영환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OC제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금요일성경예배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6:00
19514 North St., Northridge, CA 91321, (818)863-9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4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549-9191 / F. (818)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M.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저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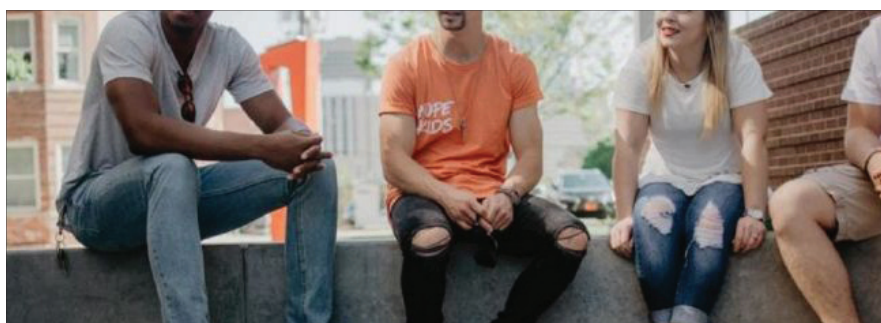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美 밀레니얼 세대 14%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파”



©Unsplash/Kate Kalvach

미국 애리조나크리스천대학교 문화연구센터의 최근 연구조사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14%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에 가장 고민이 깊은 세대였다. 밀레니얼 세대 중 22%는 “생명이 신성하다”고, 50%는 “생명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든 세대의 경우 32%가 “생명과 관련된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고 믿었다. 지난 8월 1984년부터 2002년 사이에 태어난 600명의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온라인 조사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만족도가 어떤지 보여줬다. 여기에는 개인의 건강, 직업, 관계, 재정, 영적인 삶, 그리고 국가가 포함됐다. 밀레니얼 세대 중 66%가 삶에 “만족한다”고, 29%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37%는 “다소 만족한다”, 20%는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 11%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관해 37%가 “재정 상황의 개선을

원한다”고, 17%는 “보수가 더 좋은 일 자리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15%는 “값야 할 빛이 줄어들기”를 희망했다. 응답자의 5%만이 “삶이 큰 변화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약 28%가 “더 깊은 우정”, 10%는 “배우자나 파트너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했다. 13%는 “인종, 민족, 성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감소”, 12%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존중하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밀레니얼 세대들 중 14%가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답했다. 조사를 실시한 조지 바나 박사는 “오늘날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최근 “예수와 성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밀레니얼 세대 중 30%가 자신을 LGBT로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나 박사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인생은 나에게 관한 것’임을 가르치는 세계관을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혜진 기자

美 의원 6인 “핀란드, 종교자유특별감시국에 포함돼야”



페이비 래세넨 전 핀란드 내무장관. ©인터내셔널 자유수호연맹

결혼과 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피력한 기독교 하원의원과 주교를 기소한 핀란드를, 미국이 종교자유 특별감시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하원의원 6명은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핀란드를 미 국무부의 종교자유침해 특별감시대상국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USCIRF 나딘 마엔차 의장 앞으로 공동 서한을 보낸 이들은 텍사스의 짐로이 의원과 마이클 클라우드 의원, 플로리다 바이런 도날드 의원, 애리조나 폴 고사 의원, 조지아 조디 하이스 의원, 콜로라도 더그 램본 의원이다. 앞서 핀란드 검찰은 4월 핀란드 북음주의루터교(ELMDF) 주교, 유하나 포올라 주교, 기독교민주당 의장 페이비 래세넨을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핀란드북음주의루터교회 교인인 래세넨 의원은 2004년 성경과 성에 관한 책자를 통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2018년과 2019년에도 그와 같은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기소 결정이 “명백한 정부 권력의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시민들은 절대 근본적인 자유(그들의 신앙)와 법적인 박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

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17년 이상 대중의 주목을 받아 온 소셜미디어와 책자에 언급한 발언으로 시민을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핀란드 정부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말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며, USCIRF가 종교자유 특별감시대상국에 핀란드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서한에 대해 핀란드의 아누 만틸라 검찰은 CT와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무관하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검찰 당국과 핀란드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압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래세넨 여사가 동성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나 성경을 인용하거나 성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기소하지 않는다. 핀란드에서는 성경 문분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라고 했다. 이어 “래세넨 의원과 포올라 주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들은 다른 견해 뿐 아니라 종교적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동성애자나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편협함, 경멸, 심지어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발언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래세넨 박사와 포올라 주교는 혐오적 발언 혐의를 부인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 행위는 죄라고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혜진 기자

프랭클린 그레함, 심장 수술 후 퇴원... “하나님 임재 느꼈다”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심장 수술을 받은 후 최근 퇴원한 소식을 직접 알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그레함 목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주 월요일 수축성 심낭염을 교정하는 전문 수술을 받은 후, 어제 미네소타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요 클리닉에서 퇴원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레함 목사는 “주치의와 메이요 클리닉 팀이 훌륭한 치료와 전문성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할 따름”이라며 “의사들은 제가 정말 잘 회복하고 있고, 완쾌되면 정상 활동과 사역 일정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향후 몇 주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도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안다”면서 “나는 결코 두렵지 않았다. (수술을) 경험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고 밝혔다.

올해 69세인 그레함 목사는 이달 8일 심장 주변에 수축성 심낭염과 심막경화가 발생해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레함 목사가 이끌고 있는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은 최근 성명에서 “주치의는 그의 완쾌를 기대하며, 그가 정상적인 활동과 사역 일정에 복귀할 것을 확신했다”면서 “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사마리안퍼스 제공

그레함은 2022년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믿도록 초대하는 여러 기회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그레함 목사는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미국 8개 도시를 순회하는 ‘God Loves You’ 전도 캠페인을 벌였다.

이 집회는 미국의 심장부인 ‘66번 국도’를 따라 시카고(일리노이), 세인트루이스(미주리), 스프링필드(미주리), 앨버커키(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시티(오클라호마), 애머빌로(텍사스), 샌버너디노(캘리포니아)에서 개최돼 5만 6천 명 이상이 참석하고 5천여 명이 결신했다.

김유진 기자

NFL 쿼터백 커트 워너의 감동실화 영화 ‘아메리칸 언더독’, 내달 개봉



©라이언스게이트

미식축구 쿼터백인 커트 워너의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아메리칸 언더독’이 내달 크리스마스 미국에서 개봉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앤디 어윈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드라마 ‘척’의 주인공 제커리 리바이와 애나 패권이 주연을 맡았다.

앞서 어윈 브라더스 감독은 기독교 영화 ‘언브레이크블 보이’(The Unbreakable Boy)에 이어 제커리 리바이와 재회했다. 이 영화는 마크 시아디와 커트 워너, 그의 아내 브렌다도 공동제작자로 참여했다.

앤디 어윈은 최근 CP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은 내가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영화의 문을 열고 계신다”라며 “스토리가 환상적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 영화가 공개되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라이언스게이트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에 개봉하자고 제안했다”라고 했다.

어윈 감독은 형제인 앤드류 어윈과 함께 블록버스터 히트작인 ‘아이 캔 온리 이매진’(I Can Only Imagine)을 감독했다. 그는 “관객들이 ‘아메리칸 언더독’을 보게 돼 기쁘다”라며 “아내와 함께 가족을 위해 투쟁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그는 싱글맘인 브렌다와 결혼했고 그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은 시각장

애인이었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다”라고 했다.

‘아메리칸 언더독’은 식료품점의 평범한 소년에서 NFL MVP 2회, 슈퍼볼 챔피언, 명예의 전당 쿼터백이 된 워너의 감동적인 실화를 그렸다. 이 영화는 워너의 독특한 이야기와 NFL 선수가 되기까지 있었던 수년간의 도전과 좌절에 중점을 둔다.

영화의 각본은 ‘프라이데이 나이트 라이츠(Friday Night Lights)’를 쓴 데이비드 애런 코언(David Aaron Cohen)과 ‘아이 스틸 벨리브(I Still Believe)’의 존 건(Jon Gunn), 그리고 ‘아이 캔 온리 이매진(I Can Only Imagine)’의 작가 존 어윈(Jon Erwin)이 참여했다.

각본은 워너의 회고록인 ‘All Things Possible: My Story of Faith, Football and the First Miracle Season’(가능한 모든 일: 믿음, 축구, 첫 번째 기적의 시즌에 대한 나의 이야기)에 포함된 개인적인 간증을 기반으로 했다.

라이언스게이트 모션픽처그룹 회장인 조 드레이크는 CP에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감정인 믿음의 힘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며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 영화의 완벽한 개봉일은 크리스마스이며 우리는 날짜를 맞추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p> <p>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p> <p>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p> <p>서보천 담임목사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p>
<p>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p> <p>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p> <p>김경환 담임목사</p> <p>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p> <p>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p> <p>이종용 담임목사</p> <p>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p>
<p>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p> <p>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p> <p>고창현 담임목사</p> <p>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p> <p>김우준 담임목사</p> <p>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c.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p> <p>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p> <p>구봉주 담임목사</p> <p>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p> <p>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죽예배 매일 4매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p> <p>오병익 담임목사</p> <p>남가주 벤틀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p> <p>수요예배 오후 7:30</p> <p>백정우 담임목사</p> <p>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p>	<p>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p> <p>안창훈 담임목사</p> <p>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p>
<p>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3부 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p> <p>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p> <p>안성복 담임목사</p> <p>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코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p>	<p>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p> <p>림학춘 담임목사</p> <p>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p>
<p>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p> <p>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이서 담임목사</p> <p>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p>	<p>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p> <p>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p> <p>김한오 담임목사</p> <p>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p>
<p>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p> <p>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p> <p>박신웅 담임목사</p> <p>얼바인온누리교회 다들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p> <p>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p> <p>한기홍 담임목사</p> <p>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p> <p>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남성수 담임목사</p> <p>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p>	<p>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박훈 담임목사</p> <p>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p>
<p>주일예배 금요영성예배 아침말씀예배</p> <p>오전 11:00 오후 7:00 월-토</p> <p>씨니킴 담임목사</p> <p>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유튜브 ‘미주 기독교일보 CDTV’ 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You Tube

“英 리버풀 자폭테러범, 망명 시도 위해 기독교 개종 이용”

영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에마드 알 스왈민(32)이 지난 14일 리버풀 여성병원 앞에서 발생한 택시 안에서 자폭테러를 일으킨 범인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워싱턴행 비행기 안에서 가진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스왈민이 영국에 남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하면서 영국 망명 시스템인 ‘메리-고-라운드’(merry go round)를 악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파텔 장관은 “리버풀의 경우 과거의 시스템이 얼마나 고장나고 망가졌는지, 왜 바뀌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내무부의 한 소식통은 “스왈민이 망명을 위한 시도로 기독교 개종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이나 이라크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시스템 조작’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략이다. 영국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의 개종 때문에 고국에서 위협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BBC 방송 캡처

그는 지난 2014년 영국에 도착해 자신이 시리아 출신이라며 망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가 요르단 출신임을 보여주는 자료들 때문에, 망명은 그 이듬해 기각됐다. 그는 2019년 또 망명 신청을 했지만 시리아 출신이라는 주장이 기각되면서 우울증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스왈민은 2015년 기독교로 개종을 시도했고, 엔조 알메리라는 새 이름을 선택했다. 그는 그 해 리버풀 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2017년 견진까지 받았으나, 2018년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 교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017년 법원은 “리버풀 대성

당의 강좌와 예배에 참석한 이란인들의 수가 많음은, 그들이 모두 진정한 개종자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개종자가 개종한 척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망명 사건들의 경우, 법원에서 원고의 새 신앙이 진

짜라는 판결을 내린 후 승인됐다. 한편 영국 경찰은 스왈민이 직접 폭탄을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0세 남성 4명을 이 를 도운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그는 병원에서 약 10분 떨어진 곳에서 리버풀 대성당에 가자고 했고, 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병원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조앤 앤더슨 리버풀시장은 “택시 운전기사가 폭탄이 터지기 전 승객의 수상한 김새를 눈치 채고 그 승객이 나갈 수 없게 문을 잠갔다”며 “그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끔찍한 참사가 될 뻔한 일을 막아냈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그 운전기사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하고 용기 있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페라리라는 이름의 운전기사는 폭탄이 터진 직후, 불이 붙기 전 간신히 택시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다. 그는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

이미경 기자

무슬림에 납치된 12세 파키스탄 소녀, ‘강제 개종·결혼’ 우려



파키스탄의 한 가정에서 소녀가 문맹인 어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다 (상기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한국오픈도어

파키스탄 경찰은 용의자 2명을 체포했으나, 여전히 그녀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녀는 발루치스탄주 출신 무함마드 마우드로 알려진 22세 남성에게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녀의 가족은 납치범이 그녀를 발루치스탄으로 데려가 이슬람으로의 개종과 결혼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파르자나의 친척인 세실 조지는 “딸의 납치로 파르자나의 정신건강이 악화돼 입원한 상태”라고 전했다.

사히왈의 자히드 어거스틴 목사는 “미라브는 12살밖에 되지 않아 결혼을 할 수 없다”며 “가해자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연대와평화운동이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 힌두교 및 기독교 공동체 출신 수백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매년 납치, 강

제 결혼, 강제 개종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CC)는 “많은 피해자들이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고, 가해자와 결혼했으며, 위조된 결혼 및 개종 증명서에 따라 구류돼 있다. 가해자들은 폭행, 위협, 그루밍 전략을 사용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지지하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다”고 밝혔다.

앞서 ICC는 “가해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성폭행 사건에 종교적 요소를 첨부한다. 종교적 편견을 이용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 및 정당화하고, 피해자인 소수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한 바 있다.

지난 9월 펜자브주 법원은 납치 및 강제 결혼과 개종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14세 기독교 소녀의 양육권을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파이살라바드 출신 로마 가톨릭 신도이자 인력거 운전사인 굴자르 마시흐가 납치범에게서 딸 차슈만의 양육권을 되찾아 달라고 낸 탄원서를 기각했다.

타리크 나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슬람 율법학자들은 아이의 이슬람 개종에 있어 연령이 아닌 정신적 능력을 고려한다. 개종은 믿음의 문제다. 하즈라트 알리가 이슬람을 받아들였을 때는 겨우 10살이었다”고 밝혔다. 하즈라트 알리는 이슬람의 4번째 칼리프다.

국제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가순위에서 파키스탄은 올해 5위를 기록했다. 미 국무부도 종교 자유의 심각한 침해에 관해 관용적이거나 또는 이에 가담한 국가들을 대상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파키스탄을 포함시켰다.

김유진 기자

어머니는 충격으로 입원 중... “종교의 이름으로 범죄”

이달 초 파키스탄 펜자브주에서 무슬림 남성에게 납치된 12세 기독교인 소녀가 강제 개종 및 결혼을 당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족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사히왈 지역에서 가사 노동자로 일하는 어머니 파르자나(45)와 함께 살고 있던 미라브 압바스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지난 11월 2일 실종됐다.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 WKC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1-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목사 하기 아깝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습니다. 카메라를 달아준 목사님은 성도 좋고 누가 보더라도 신실한 분이데 교인이 몇 명 되지 않고 교회도 성장하지 않아서 목회에서는 늘 고생만 하며 사모님이 일하지 않으면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니, 목회보다는 기술자로 생활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목회자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기술자로서 우대받으며 살 수 있는데 왜 이려고 사나는 안타까움이 섞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선교사가 되겠다는 아들에게 “아이비리그 대학 나와 선교사 하는 것이 아깝다”라는 부모의 말과 비슷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다른 가치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유학 보내기 위해 논밭을 다 파는 부모님은 자식 공부시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에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주저 없이 팝니다. 그 가치로 보자면, 자식을 위한 수업료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정교한 음악 듣기를 즐기는 사람은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지언정 ‘Boss’라고 불리는 고가의 사운드 시스템을 거실에 설치하고, 건강을 위해 늘 뛰는 사람은 운동화의 가치를 알기에 아무리 비싸도 좋은 운동화를 신고 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복음을 위해 아까운 목사나 선교사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는 아까운 기술자나 대통령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의 생명 가치에 견줄만한 또 다른 가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가치 때문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찬양을 부르며, 감사절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미니벤에는 후진할 때 뒤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처음부터 옵션으로 들어 있는 차도 있지만, 차를 살 때 없었더라도 나중에 카메라를 별도로 구매하여 자동차에 장착하면 안전 운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도 차에 이 옵션이 없어서 따로 카메라를 샀는데, 막상 자동차에 장착하기가 쉽지 않아서 카메라만 가지고 다니다가, 이를 알게 된 손재주 좋은 목사님이 차에 카메라를 달아 주었다고 합니다. 와이어도 밖에서 보이지 않게 안으로 집어넣어 마치 딜러에서 전문가가 작업한 것처럼 깔끔하게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후진할 때마다 스크린에 뜨는 선명한 화면을 보면서 어찌나 기분이 좋는지 목사가 한다는 말이 “당신은 목사 하기 아깝다”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 같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 다 되는데, 계시 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 한 분이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 상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을 주기도를 외었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팬데믹을 지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 편히 웃으며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요 행복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의 가장 큰 감사는 먼저 구원의 감사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일상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신학교 시절, 자주 목상했던 시 한편이 생각났습니다.

목회일기 4

신학생 담임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쌓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꺾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갖고 배부른 아내가 가었고,
웬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처음 이 시를 읽고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혼이 났습니다.

그 때가 신학교 시절, 결혼하여 아내와 2살이 된 아들, 정환이...

시를 쓴 목사님 같이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아내와 아이에게 미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간들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온 흔적, 감사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오늘, 그리고 남은 일생동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동죽성교
박성원 목사

안개처럼 사라졌다 돌아온 나를 찾아온 동료들에게 아무래도 성경을 구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힘들 것 같으니 살손(도적질)을 하자고 했다. 그러자 동료들은 그 일은 자기들이 할 테

니 나더러는 집에서 쉬면서 상처나 치료하라고 했다.

그 후 동료들은 중국의 어느 교회에 가서 성경책 한 권을 훔쳐왔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도 드디어 성경책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일일이 쪼개서 돌아가면서 읽기로 했다.

하지만 성경을 쪼개는 문제 때문에 대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전에 조금이라도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책에 칼을 댈 수 있느냐고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도 아니고 책일 뿐인데 칼을 대는 것이 어떻게 불

경한 일일 수 있느냐고 따졌다. 양쪽 의견이 팽팽해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자, 책임자인 나를 일제히 바라보았다.

이제 성경을 쪼개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결정권이 내게 넘어온 것이다. 나 역시 성경에 칼을 댔다가 저주가 임할까 두려웠다. 그렇다고 어느 세월에도 성경 한 권을 돌려 입을 것인가에 생각이 미치면 칼을 대는 것이 맞는 것 같았다.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막상 성경을 쪼개 읽자는 사람들도 감히 칼을 대지는 못했다.

결국 성경을 쪼개 읽더라도 칼을 대는 일은 내 몫이었다. 나는 트랙터로 360도 굴리기를 했을

때도 나를 살려 주신 하나님에 설마 성경에 칼을 댄 일로 나를 어찌했나 싶어 칼을 들었다. 그러자 성경에 칼 대는 일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무슨 큰 재앙이라도 떨어질까 두려운지 저 멀리 물러났었다. 마침내 내가 66권을 일일이 쪼개는 데 성공하자 내심 겁을 집어먹던 지지파들도 반대파들을 향해 “겁먹기는, 젠장”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 성경 한 권씩을 분배받아 돌아가며 말씀을 탐독할 수 있었다. 나는 책임자이자 성경을 직접 쪼개는 일을 참작하여 모두 한 권씩 돌아가고 남은 한 권까지 포함하여 두 권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레위

기와 사무엘상이었다. 하지만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성경에 씌어진 말씀 그대로 좇으려다 하지 않아도 될 고초를 무수히 겪어야 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는데, 문자만 만난 탓이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다

나는 내 손에 들어온 레위기와 사무엘상을 포전에 나가서는 물론 밤에도 등잔불을 켜고 읽고 또 읽었다. 그런데 읽을수록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차올랐다.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는 독재자 김정일과 똑같은 분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계속)

CDTV 미주기독일보

미주기독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미주기독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세요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나를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35-50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사람이 왜 태어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창세 이후로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습니...

이 세상은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쇼하는 무대라고들 합니다. 자기인생의 각본을 따라서 제멋대로 쇼하는 것이 세상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쇼를 잘했을 때는 박수와 대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쇼를 잘못했을 때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욕을 듣고 원망과 심지어 행패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은 원맨쇼로 살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人)을 한문으로 보면 상형문자로 혼자 살수 없고 서로 의지하고 살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1:26이하에서 보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창조되어졌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2:7에 되풀이해서 밝히셨고 창 1:36 이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마지막에 만드신 사람에게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천하만물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셨습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을 있도록 만들어 낸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인간에게 관리가 위탁되어졌습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세기1:26)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의 다스림으로 위임되어졌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얻어서 먹고 살자고 그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히려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던 소유권을 다시 얻기 위하여 종살이를 하게 된 오늘의 현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 하나님의 계획(計畫)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신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 애써 일하고 계셨습니.

어느날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와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권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좇습니.

요한복음 1:38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선생님 어디 계시오

니이까”하고 묻습니.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와 보라” 나를 따르고 나를 받내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밤을 지내게 됐습니. 하루 밤을 같이 지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확실하게 알아보게 됐습니. 이튿날이 새기 바쁘게 안드레가 자기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주시라 했던 그분을 만났다”하고 베드로를 전도해서 데리고 갑니.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내형님이고 시몬이라고 소개하기도 전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니 이름을 이제 바꾸어 게바라 하라”(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영어로 Peter라 해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하습니. 이 이름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예수그리스도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을 동생 안드레가 전도하여 와서 소개도 시켜 드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시몬을 알아보셨습니. 심지어 그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위에, 즉 너의 정통한 신앙고백을 반석으로 내 교회를 이 땅위에 세우겠다고 하습니. 또한 요한복음 21: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하습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 당하여 죽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남은 평생은 이미 예수님의 각본에 따라 계획이 되어져 있었고 그대로 살다가 순교 했습니.

이처럼 우리 인생의 설계는 내가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설계하고 추진도 하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거기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도,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성공을 기대할 수도 절대로 없습니.

그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생기게 하심으로 생겼고 태어나게 하심으로 태어났습니. 내 인생의 스케줄을 하나님이 짜시는 것입니다. 그걸 일찍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스케줄에 들어가서 맞추고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성공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2. 나보다 나를 더 잘아시는 주님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나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하습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동네 갈릴리 동북해안에 있는 작은 동네의 사람이었습니.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니엘이라는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전도하게 됩니. 빌립은 예수님이 알려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 그런 빌립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즉 예언이 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동네의 예수더라고 소개를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고 베들레헴 출신입니. 그런데 나사렛사람이라고 하니 나다니엘이 듣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합니. 구약성경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 이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합니.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전도 밀천이 모자랐습니. 그러니까 그 친구를 어떻게 설득시킬 수가 없어서 가장 마지막 전도 방법은 “한번 와 보라”였습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고 말씀하시니 나다니엘이 당황해서 “선생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데리러 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하습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성(兩性)을 보게 됩니.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인성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도 있어야 했습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성이고 나다니엘이 6개월 전에 날이 더워서 무화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망한 나라 이스라엘을 빨리 독립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울며 기도한 사실을 알고 하신 말씀은 영성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십니.

3.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依託)

로마제국주의 압제 하에 식민지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동력은 착취당하는 생활 속에서 참으로 살맛이 없었을 겁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기존자의 뜻을 무시하며 짓밟았기 때문입니. 이것은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고통에 몰아붙이시는 겁니. 만약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물러가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지른 죄 값을 회개하라고 강하게 고통을 주시는 것으로 깨닫고 서둘러 회개하시게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 받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급속도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절망은 소망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죽음은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해 보십니.

“믿음으로 살면 너의 가는 길에 장애물을 내가 평탄하게 하고 험통하게 내가 책임지고 보살피 주리라”(수1:7-9)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일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받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 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친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공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법률 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 입니.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따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예약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700 S. Flower St., STE 1000 Los Angeles, CA 90017
3435 Wilshire Blye STE 2700 Los Angeles, CA 90010

“세 장소 이전”
E-mail: marhlaw@yahoo.com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책 쓰기! 나도 할 수 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 지금은 시도할 때



책 쓰기! 나도 할 수 있다 김도인 글과길 | 260쪽

그리스도인에게 책 쓰기는 'The Mission of God' 그리스도인들이여! 책을 쓰자!

책을 써서 그리스도의 도를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

책 쓰는 것을 하나님의 지상명령처럼 여겨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이 쓴 성경을 통해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이젠 우리가 책을 써서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책이 사람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살린다. 책 쓰기는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세상에는 비밀이 많다. 값어치가 나갈수록 더욱 그렇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CEO인 저스틴 선은 2019년 전설적인 투자자라 불리는 워렌 버핏과 점심식사를 위해 54억 원을 내기도 했다.

애플의 기술과 54억 원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스티브 잡스와 저스틴 선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성공의 비결이다. 성공의 비결은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비밀이 많다. 비밀을 많이 만들수록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성공비결을 쉽게 전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대다. 비밀이 없다. 오히려 좋은 것을 알려준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공짜로 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철학이다.

저자 김도인 목사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감 없이 알려준다. 처음 시작은 설교였다. 설교에 대한 자신만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다음은 목상이었다. 그리고 이제 책 쓰기를 알려주려고 한다.

《책 쓰기! 나도 할 수 있다》는 저자의 책 쓰는 노하우가 담겨 있다.

저자는 누구나 책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책을 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알아주는 목회자 작가는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책 쓰기를 하나님의 미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권의 책은 세상 곳곳을 누비며 큰 영향력을 미친다."

저자는 책 쓰기가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말한다. 중동 지역에서 전설적인 선교 사역을 한 사무엘 즈웨머는 문서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인쇄물을 결코 주춤거리지 않으며, 결코 비겁하지 않으며, 타협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며, 지지거나 낙담하는 법이 없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때도 일하고, 냉정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오래도록 일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책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 책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전도가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코로나 시대에말로 책 쓰기가 필요하다.

저자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고 말한다.

첫째, '말'이다.

둘째, '책'이다.

셋째, '삶'이다.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제는 책으로 복음을 전할 때다. 그러나 아무나 책을 쓰는 것은 아니다. 책을 쓰고 싶지만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저자는 책 쓰기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한다.

"요즘 책 쓰기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다 책을 쓴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책을 쓰는 것은 고만할 거리도 아니다."

"글쓰기는 자신감이 절반이다."

《강원국의 글쓰기》에 나오는 말이다. 책 쓰기에도 자신감이 필요하다.

쓰기 펜 남자 잉크 종이 연필 손 손가락 블루 셔츠 책상 쓰다 사업 사무실 writing write 글 김도인 《책 쓰기 나도 할 수 있다》는 크게 5장으로 되어 있다.

1장, 왜 책을 써야 하는가?

책 쓰기는 하나님의 미션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세하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책을 써야 할 이유다.

2장, 책 쓰기의 출발이자 완성인 독서

독서 요약으로 자료를 수집하라. "책은 자료로 쓰는 것이다." 저자의 메시지를 주장, 의도, 목적으로 작성하고 메시지로 설명하는 핵심 정보를 주제, 요점, 중요 내용으로 정리한다.

3장, 책 쓰기의 중심에는 글쓰기가 있다

매일 글쓰기에 도전하라. 글을 쓰면 습득에 그치지 않고, 체득으로

이어진다.

4장 책 쓰기를 기획하라 콘셉트가 책의 가치를 결정한다. 자신에게 맞는 콘셉트, 시대 흐름에 맞는 콘셉트, 남들과 차별화된 콘셉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5장, 원고 투고에서 출간까지 원고 투고, 포기는 금물이다. 저자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니 기회가 왔다.

저자의 책은 실제적이다. 원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까지 설명해준다. 영영 비밀을 아낌없이 알려주고 있다.

이제 시도하는 일만 남았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것이다. 비밀을 알면서도 시도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

책 쓰기,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도전하여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한다.

김현수 목사 행복하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그리스도인에게 책 쓰기는 'The Mission of GOD' 그리스도인들이여! 책을 쓰자!

책을 써서 그리스도의 도를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 책 쓰는 것을 하나님의 지상명령처럼 여겨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이 쓴 성경을 통해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이젠 우리가 책을 써서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책이 사람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살린다. 책 쓰기는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1. 책 쓰기는 하나님의 미션이다

크리에이티브인 김도인의 문장의 비결도 다독에 있다. 그는 3년 동안 1만 권의 책을 읽고, 작가와 편집인으로 살아오고 있다. 많은 작가가 다독을 권장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다독을 통해 큰 유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나의 책 《어제는 목회자》에서도 1,000권까지는 다독을 권한다. 이는 1,000권을 읽을 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쌓여서, 그 다음 단계의 책이나 글 쓰기에 활용되는 원동력이 된다.

드림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실 분을 찾습니다.

- 분야**
 - 찬양팀 건반 반주자
 - 중고등부 전도사
- 파트타임**
- 연락처**

626-793-0880
dreamchurchresume@gmail.com

오렌지 카운티 지역

방 있습니다

월 600불

애나하임 가정집 2층 베드룸 렌트
젊은 남자분 직장인이나 학생 환영

714-337-6888

전화 혹은 텍스트 문자 주세요.

CHRISTIAN BUSINESS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일예배, 교회로고, 이그전트&침례식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3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세울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마블 새 시리즈 <이터널스> (2)

이터널스 등 영화로 쌓아올린 마블 신화, 성경과 동급으로?

윤리적 진지함을 향한 마블 스튜디오의 행보
환상적 속성과 작품성, 아직 어우러지지 못해
영적·실존적 현실, 실제적인 방식으로 관통?
성경 수준 실존적·윤리적 영향력 갖긴 힘들어

◆마블의 작품성: 작품성 확보에 도전하는 마블 스튜디오의 행보

마블 코믹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가상과 흥미 위주로 전개된다. 이는 히어로 코믹스라는 콘텐츠 형식의 본성이자 한계이다. 간간히 윤리적 메시지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서사의 핵심이 될 수는 없고, 히어로들의 활극에 대한 상상력이 항상 주를 이룬다.

현재 디즈니의 자회사 마블 스튜디오의 고민은 디즈니가 고집하는 다양성 이념, 정치적 올바름(PC) 사상을 어떻게 히어로 영화 속에 조화롭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윤리적 메시지를 강화하면 서사가 밋밋해진다. 왜냐하면 윤리란 냉혹하고 재미없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영화적 상상이 과하게 반영되면 될수록 윤리적 설득력이 약화된다. 이는 현재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직면한 딜레마이다.

DC 엔터테인먼트는 나름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낸 경험이 있다. <다크 나이트> 3부작(2005-2012)과 <왓치맨>(2009), 그리고 <조커>(2019)를 통해 히어로와 윤리라는 주제를 적절하게 엮어냈고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물론 이를 위해 세 작품 모두 히어로의 활약과 관련된 영화적 상상을 상당한 수준으로 억제해야 했다.

<다크 나이트>에서 배트맨이 사용하는 장치들은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고, <왓치맨>의 히어로들은 닥터 맨하탄을 제외하면 다들 일반인보다 조금 더 많이 강한, '캡틴 아메리카' 수준의 제한된 힘을 갖고 있으며, <조커>는 아예 일반인의 현실 안에서 서사를 풀어간다.

마블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이 점이 부러웠을 것이다. 히어로 영화에 현실성과 철학, 윤리를 성공적으로 담은 작품은 마블 쪽에서는 아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작품성을 크게 인정 받은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아이언맨 1>(2008)이나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2014)의 서사가 호평을 받지만, 그 역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들 중

에서 비교적 괜찮다는 것이지, <다크 나이트> 3부작이나 <왓치맨>, <조커> 수준에 비할 바는 아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 케빈 파이가 <이터널스>의 감독으로 세미 다큐멘터리 제작에 능한 클로이 자오를 기용하고 영화 연출과 관련된 전권을 부여한 데는 마블 측의 작품성에 대한 갈망이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다. 클로이 자오 스타일의 히어로 영화는 어설픈 현실성 때문에 히어로 액션의 화려함이 죽어버렸고, 빠른 호흡으로 진행되어야 할 서사를 느리게 진행하는 바람에 히어로 영화 특유의 긴박감을 주지 못했다.

주제의식인 생명의 순환고리와 그 속에서 희생되는 이들에 대한 고민도 밋밋한 연출과 서사 때문에 오히려 은폐되고 퇴색되는 느낌이다.

그러면 마블 영화의 환상적 속성과 작품성은 서로 성공적으로 어우러지기 어려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단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마블 코믹스는 과산 직전에 이른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대중적 인기 회복에 전념해야 했고, 마블 영화는 이 목적에 맞는 연출방식과 서사를 채택했을 뿐이다.

그리고 현재는 그 목표를 달성했고, 이제서야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작품성이라는 목표를 돌아보기 시작한 듯하다.

◆마블의 윤리: 현실에 대한 윤리적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는 마블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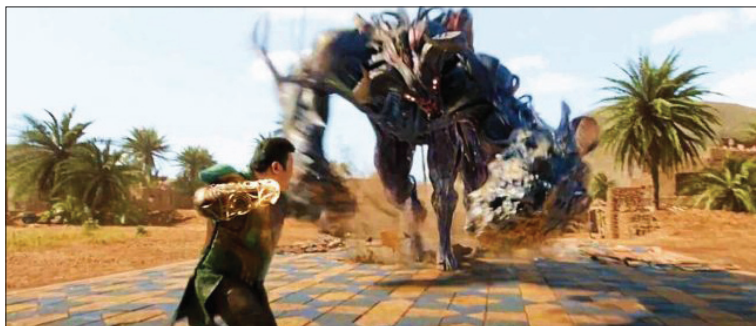
히어로 작품 속에 현실성과 윤리적 메시지를 강화해 반영하려는 마블 스튜디오의 노력은 이제 막 제대로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터널스>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그러나 마블 스튜디오의 강점은 이전에 인기없이 묻혀버린 작품의 서사와 캐릭터를 다음 영화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서는 <이터널스>의 시도가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해서, 마블 스튜디오 측의 작품성 확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의 새 작품, <이터널스>.



조잡한 허구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윤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마블 영화, <이터널스>.

보 열망이 식지는 않을 듯하다. 이렇게 한두 작품 실패하다가, 종국에는 기존의 실패 경험들을 바탕으로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DC 수준을 넘어 <아이, 로봇>(2004)이나 <컨택트>(2016) 같은 수작 SF 영화 수준의 작품성과 윤리적 무게감을 갖추게 된다면 대중문화 영역 안에서 마블 콘텐츠의 영향력은 당연히 한 단계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대중문화계 내부에 환상과 신화를 추종하는 추세를 더 강화시킬 것이다.

<이터널스>를 통한 마블 스튜디오의 시도는 야심차다. 상당한 자원을 들였지만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을 만들어도 나중에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인간 실존의 현실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은근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터널스>는 관객과 평단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다음 번에도 또 실패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실험적 시도가 이어지며 결국 어느 순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조커> 이상의 작품성을 지닌 수작이 나온다면, 그동안 마블 세계관을 열거할 수 없었던 허술한 신화와 과학의 조합들이 강렬한 현실성을 가진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

킬 것이다. 영화 팬으로서의 반가운 일일겠지만, 기독교인 관객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일이다.

그 동안 마블 작품들은 유쾌하고 흥미진진하지만 주제의식 측면에서는 경박하고 허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마블 스튜디오가 작품성과 주제의식 측면에서 호평을 받는 작품들을 연이어 쏟아내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콘텐츠 브랜드에 대한 기본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허술한 신화적 환상의 군집체가 현실적인 윤리 메시지의 전달 통로로 탈바꿈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예술의 윤리적 기능을 강화시키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허구는 그 허구의 정도가 과하다.

현상학자 레비나스는 예술의 허구적 아름다움과 그것이 주는 감성적 쾌감은 결국에는 무한한 신에 의해 주어지는 윤리계명을 감지함으로써 부정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바 있다.

그래야 그 예술 작품에 담긴 윤리적 메시지와 의미가 우리의 삶의 현실과 연결되며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블 스튜디오는 온갖 신화적, 과학적 설정들로 구성된 잡다

하고 조잡한 허구적 세계관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 마블 영화의 윤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런 시도는 결국 환상과 허구 속에서의 윤리를 가르칠 뿐, 우리 현실에 이어지는 참된 윤리적 각성을 일으킬 수 없다.

혹 유비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 고안된 유비 수준의 윤리적 가르침은 우리 삶의 현실에서 실제적인 윤리 실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타인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그 누구도 마블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윤리적 결단은 한 사람을 철저히 날 것 그대로의 현실 안으로 내던져놓기 때문이다.

<이터널스>를 통한 마블 스튜디오의 작품성 강화 시도는 대중문화 업계 내부적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사회와 삶의 현실에 진정한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세계관의 태생적 한계이다. 결국 마블의 시도는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강화할 뿐, 삶의 현실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단적으로 말해서 마블 신화는 성경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없다. 인간의 영적 현실과 실존적 현실을 지극히 실제적인 방식으로 관통하는 성경 수준의 실존적, 윤리적 영향력을 마블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마블 스튜디오는 성경이 점유하고 있는 윤리적 영향력을 대중문화를 통해 잠식하려 노력 중이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회의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문화재단 이사,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칼럼/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시내산이 사우디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우디 시내산 순례길 참가자 모집

2022년 상반기 일정

- 2월 순례길 : 2022년 2/21 ~ 3/5 (마감)
- 3월 순례길 : 2022년 3/21 ~ 4/2
- 4월 순례길 : 2022년 4/11 ~ 4/23

2022년 하반기 일정

10월, 11월, 12월 예정

* 각 일정별 정원은 30명입니다. 일찍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왜 사우디의 시내산인가?

기독교 출애굽의 경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기존의 이집트 시내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NEOM Project의 일환으로 문호를 활짝 열고 방문객들을 받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시내산을 주장하는 학자들/선각자들



Robert Cornuke

"The Mountain of God" (사우디 시내산) 저자

"이 책은 실제 시내산 발견에 대한 종래의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탐구물입니다."



이재환 선교사

Come Mission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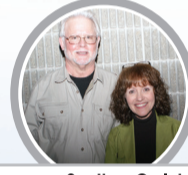
"가보면 보게 되고 알게되고 영성이 살아납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실재를 얻게 됩니다."



김승학 장로

성경이후 최고의 기독교 서적 베스트 셀러, "말기나루 1&2" 저자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6년동안 12차례 북부 아라비아 탐사, 말기나루 1편, 2편을 저술, 400회가 넘는 강연 활동중.



Penny & Jim Caldwell

"The God of the Mountain" 저자, 최초 르비딴 반석 & 여오와 낫시 재단 발견자

"우리는 Jabal al-Maqla 가 성경에서 나오는 실제 시내산 (Mount Sinai) 이라고 믿으며, Jabal al-Lawz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오렐 (Mount Horeb) 이라고 믿는다."



Dr. Glen A. Fritz

대작 "The Lost Sea of the Exodus", "The Exodus Mysteries of Midian, Sinai & Jabal al-Lawz" 의 저자

"이브리 성경에 나오는 홍해바다 (Yam Suph) 는 아카바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집트 앞바다 수에즈 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디안땅은 팔레스타인 지역 남쪽, 아라비아 펠릭스내 아카바만의 동쪽, 즉 사우디 아라비아 땅을 의미합니다. 오렐산은 사우디 아라비아 북쪽의 Jabal al-Lawz 산을 의미하며 시내산은 그중 가장 높은 Jabal al-Maqla 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상세일정

* 각 지역별로 저녁 시간에는 출애굽 여정을 다루는 특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2월, 3월에는 김승학 장로의 세미나가 제공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3박 4일)

일자	방문지
제 1일	팜 오아시스, 모세의 오아시스 (Magna), Tayeb ISM 계곡
제 2일	슈와브 동굴, 모세의 우물, 르비딴 반석
제 3일	시내산 개울가, 금송아지 암각화, 12개의 돌제단, 고대 무덤터
제 4일	시내산 엘리아의 동굴 등반, 요르단 국경으로 이동

요르단 (4박 5일)

일자	방문지
제 1일	요르단 도착
제 2일	주일예배, 와디럼 지프 투어
제 3일	페트라(시크, 엘카즈네 신전, 호르산 조망, 로마 원형극장, 왕들의 무덤, 나바테안 유적 등)
제 4일	느보산, 마다바(모자이크 성서지도), 헤스본성 순례 후 마인 운전
제 5일	압복강 조망, 제라쉬 로마유적지 관광, 공방이동

두바이 (3박 4일)

일자	방문지
제 1일	두바이 도착
제 2일	두바이 물, View at the Palm, 썬메디닛 주메이라, 두바이 박물관(성경사본) 관람
제 3일	바스타키야(민속촌), 향신료 시장, 두바이 마리나 Private 요트관광, 전통 시장, 워터쇼 관람
제 4일	두바이 출국

백신 접종률 (10/30/2021 기준)

United Arab Emirates - 86.9%(Full) + 9.9%(Partial)

Saudi Arabia - 61.0%(Full) + 7.5%(Partial)

NEOM 프로젝트

NEOM은 New Future 라는 뜻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석유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우디 생존을 위하여 시작한 어마어마한 도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의 400배 크기의 땅에 2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탄소가스 제로, 길거리 제로, 타 지역보다 섭씨 10도 이하로 낮게 하는 100% 자연 친화적인 Cognitive City 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내산 개방은 이 거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외출을 허용함에 이어 눈만 내놓았던 하접사용도 이미 자율화 하였습니다. (<https://neom.com/en-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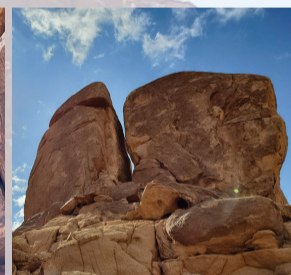
엘림



엘리아의 동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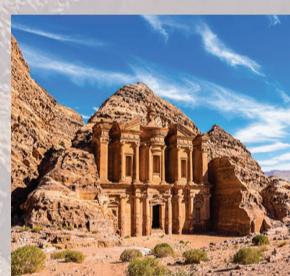
금송아지 암각화



르비딴 반석



시내산 앞 12개의 돌기둥



페트라



와디럼



예수님 세례터



Burj Khalifa



주메이라 팜 아일랜드

세마포 호도스 (Semapo Hodos)

세마포 호도스는 사우디 시내산을 진짜 시내산으로 굳게 믿고 40년간의 하나님 출애굽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방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수의이자 재림시 입으실 옷, 또 '성도의 바른 행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혁명 시대에 세상과 마주하며 통찰하기 위한 '세상을 마주하는 포럼' 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Hodos 는 '길'이라는 뜻의 히랍어입니다.



Instagram : @semapohodos
Email : info@semapohodos.com

<https://VisitMountSinaiArabia.com>

213-262-9411